

# 남원 광한루원 연계 합파우관광지 민간개발 첫삽

### 민간업체 내년까지 383억 투입 모노레일·짚와이어 등 시설 설치

남원의 대표 관광지 광한루원과 합파우관광지를 연계해 모노레일과 짚와이어(zipwire) 등 체험형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26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기공식과 함께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이 사업은 대림건설, 삼안, 더벨류컴퍼니 등 민간업체가 내년 말까지 383억원을 들여 합파우관광지에 순환형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2개를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모노레일은 합파우관광지 내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남원예술촌, 항공천문대, 춘향테마파크 등을 둘러보는 2.44km 길이로 8인승 15량을 운행할 계획이다.

짚와이어는 항공천문대 인근의 70m 높이 집 타워에서 광한루원으로 이어지는 800m 길이의 성인



남원시는 지난 24일 합파우관광지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 사업' 기공식을 했다.

〈남원시 제공〉

용과 436m의 어린이용 등 2개로 구성된다.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2022년 1월부터 시험운행을 거쳐 춘향제(5월) 이전에 정식 개통할 계획이다. 2022년 1월부터 시험운행을 거쳐 춘향제 이전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앞서 남원시와 민간업체들은 지난해 6월 투자협약식을 한 뒤 시설설계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 이완주 남원시장은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원과 합파우를 연결하는 체험형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면 즐거거리가 더욱 풍성해져 관광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주변에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건고추 등 신선한 먹거리 판매



고창군은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8월3일부터 고창군농산물종합유통센터 주차장에서 '건고추 장터'와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개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건고추 장터'는 매일 3일과 8일 고창 5일 장날에 열리며 추석 전까지 새벽시장으로 운영한다.

또 매주 토요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생산자 소득증대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군에서 판매부스 22개소와 그늘막 등 부대시설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고체 썬터와 셔블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다.

이달 27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참여를 희망하는 농여가의 신청을 받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익산시, 난포리 일대 3만9000㎡ 70억원 들여 말산업 인프라 구축

### 2022년까지 승마길·VR 말산업체험관 등 설치

익산시가 난포리 일대에 말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용안면 난포리 일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이끌었다.

익산시는 이 곳에 말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하고 말산업 육성TF팀을 구성했으며 현재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말산업단지는 70억원을 투입해 용안면 난포리 일대 3만9000여㎡ 부지에 인프라 확충한다.

사업 대상지에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 승마장과 금강 수변을 활용한 승마길, VR 말산업체험관, 재활승마 인프라 등이 들어선다.

익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승마 대중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활승마 기반을 구축하고 농촌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일대에 조성하는 공공승마장 조감도.

이 밖에도 승마대회 유치, VR 체험관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변 농촌자원과 연계해 북부

지역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산업까지 성장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사계절 향기·매력 넘치는 정읍시, '힐링도시' 조성

정읍시가 사계절 향기와 매력이 넘치는 새로운 힐링도시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26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7기 후반기 핵심 전략사업으로 구룡동 라벤더 단지를 중심으로 한 '향기공화국 정읍'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정읍시는 '향기'를 주제로 힐링과 치유를 산업화하고 향기 산업을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 나갈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읍시는 지난 24일 전북대학교 최정란 교수를 초청, 향기도시 비전과 향기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최 교수는 라벤더의 역사와 재배방법, 에센셜오일의 효능, 라벤더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강연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

정읍시는 천혜의 경관 기반과 자생차, 구절초, 지황 등 풍부한 주변 여건을 활용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향기'로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농촌관광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첨단산업단지과 연계한 기술개발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까지 산업화를 확대해 나갈 구상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이 갖고 있는 향토 자원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체계화할 수 있는 전략과 사업화 방안을 모색해 대한민국 대표 향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순창군, 불합리한 규제 개선...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순창군은 규제 책임을 국민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입증책임제는 증명책임의 주체를 바꾼 규제혁신제도로, 건의자(국민·기업인)가 규제 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규제 해소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기업, 주민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현실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타파한 규제혁신으로 규제 입증책임제를 도입했다.

순창군은 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에 따라 규제 입증요청제를 순창군 홈페이지에 개설해 주민과 기업이 규제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언제라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규제 입증요청제로 주민이나 기업이 규제 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셈이다.

규제개선을 요청한 주민이나 기업은 순창군 홈페이지를 방문해 규제입증요청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관련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

정하고, 최종결과를 접수 후 60일 이내에 회신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중앙부처는 올해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제입증책임제를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 군도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에 반영, 체계적인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용할 계획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 입증요청제를 통해 자치법규 중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국민이나 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2022년 8월 군산에서 열린다

군산시는 '2022년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를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2007년 시작된 전국단위 정식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로 결선대회가 전라북도에서 유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회는 2022년 8월 열릴 예정이다.

군산시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VR/AR, e스포츠 등 문화콘텐츠산업육성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 처음으로 '2020년 군산시장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